

합창무용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선교 가능성 탐색

안비화(숙명여자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지금 대변혁의 시기를 맞으면서 국가와 민족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면서 국제적인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인종, 민족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7년 38만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거주자가 10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6에는 194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 2013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이 중에 한국인의 일부가 되어 우리 사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81,295명으로 다문화가정은 2013년 기준 268,000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51,000명으로 향후 8년간 3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태로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된다는 예상도 내어 놓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2012년 146,071명에서 2020년에는 302,691명으로 향후 8년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여성가족부, 2012:16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일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라는 고정관념(오성배 외 2008: 67)이 팽배하여 제3국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문화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다문화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며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함으로 보호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 또한 이를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특별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자녀로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주체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들이 소외집단이 되어 차별받지 않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델이기 때문이다(정웅섭, 2001).

성경은 우리에게 다문화 선교의 당위성을 주고 있다.

1)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05/116_203843.html

그것은 첫째,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한다(박윤중 2014: 24).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을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보며 이들이 소외집단으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한다 .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다문화가정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먼저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한 가족으로 품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욱 쉽게 다문화선교의 접촉점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살펴보면 축제를 열어 각 나라의 장터가 열리도록 장을 마련하며 자신의 본국의 음식을 만들어 경연하게 한다. 또한 각 나라의 전통노래와 춤, 공연 등을 선보이게 한다.(최용진, 2009:24-26).

이러한 활동은 서로 간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다.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단절의 벽이 사라져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조준형(2009)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을 감성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며 나아가 주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감수성 교육이다. 또한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몸소 드러내고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가치 등을 스스로 또는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교감하게 된다.(안비화, 2012: 3)

다문화사회의 갈등요소를 해소함으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며 한국교회의 다문화선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이 강조되는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의 다문화가정을 이 시대의 약자로서 인식하고,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하나 된 모습으로 부족함을 서로 채워 나아가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교회에서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한 방법으로써의 합창무용교육을 제시하며 이것이 우리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선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인 합창무용교육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두었다.

II.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가정 아동

1. 다문화사회

전 세계가 단일 문화나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양극화가 극심해 지면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치적 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이주를 결정하는 이주자도 있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 질수록 내국인들이 보수가 적고 위험한 직종은 기피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기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공장이나 지사를 세우거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다.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사회적 계급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문화까지도 하위문화로 생각하게 되었다.(안비화, 2012: 21)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이주자들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며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맞고 있다. 특히 결혼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다민족, 다인종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5만 명 시대라는 보도 자료를 게시하였다. 아래 <표 1>에서 살펴보면 그 수는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9,389명)보다 2012년에는 무려 5배 늘어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2)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수(명)	9,389	14,654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표1>연도별 다문화 가정 초·중·고 학생수/ 출처: 교육부(2012)

또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0.7%이고, 전체 학생 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2)

이러한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문화정책과 교육이 요구되며 또한, 사회각계가 앞장서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과 ‘가정’은 사회적 단위로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나 사전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가정’은 가족의 생활공동체로서 환경적 의미를 내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

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구성원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교육부, 2014).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정부 정책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 개념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의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 개념은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지원법에 기초한 다문화가정 규모는 2012년 704명이다.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 강화 등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촉진으로 결혼이민자 규모는 2012년 268명에서 2030년 604천명으로 125.4%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행정부, 2012; 통계청, 2012). 국내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의 비중은 2012년 0.53%에서 2030년 1.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8년 후에는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이 다문화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인구는 2012년 146,071명에서 2030년 591,237명으로 304.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행정부, 2012).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다문화가정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래, 2011년 4월 법안개정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원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제1차 다문화가정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과 제2차 다문화가정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지역계획 수립과 다문화가정지원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III. 성경을 통해 본 다문화가정의 이해

신약과 구약성경에서 보여 지는 이방인과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회에서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약을 통해 본 다문화가정의 이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창 15:13)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니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오태균, 2006:19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히브리민족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심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창 12:3; 22:18)

또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형편이 어려운 약자로 생각하고 학대하지 말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니라”(출22:21)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19:9-10)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이스라엘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타국민, 이방인)을 보호 하시며, 이스라엘의 타국인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명령하신다.(김효준, 2011: 327-328)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포용적인 입장은 그들도 과거에 나그네였다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타인들의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향한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향한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부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임을 확신하고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신약을 통해 본 다문화가정의 이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여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로 여겼다.(오태균, 2006: 195-197)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 이방인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개방적 태도를 보이신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왕래조차도 꺼려했으나.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사역 동안 유대 땅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마을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이적을 베풀었다.(소기천, 2000:175-92)

또한 유대인들이 만남조차 꺼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며 복음을 전했으며(요4:9),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 교만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기도 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10:33-37).”

예수의 사역은 한 율법사와 나눈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한 율법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마 22:34-40; 막12:28-34; 눅10:25-28). 이 말씀에 이어서 진정한 이웃은 강도를 만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자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해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고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선을 베풀었던 이들의 모습을 비유(마25:38-40)로 말씀하시며 부지중에 이처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김재중, 2010:29)

또한 사도행전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다문화의 특성을 가진 교회였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15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으며,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들을 위함임을 확신했다.(오태균, 2006: 195-197)

이처럼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으며 그의 후손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다문화가정을 섬김과 사랑으로 환대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IV. 교회에서의 합창무용교육

현재 많은 교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강영실,2010: 156-157).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소외감을 교회에서도 경험하기도 한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배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타 종교인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타종교인과의 접촉 자체를 불편해 하는 것은 옳은 성경적 태도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라 하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의 단체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그 구성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의무와 역할의 대상은 교회공동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공동체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 돌봄, 구속의 완성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고 없고, 여자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의 금지를 의미한 것이다.(강영실, 2010:154)

우리사회는 그동안 사회통합을 강조할 때마다 쌍방향의 통합이 아닌 일방적응을 통한 통합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이제 조건 없이 연대할 수 있는 열린사회 및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은 사회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강영실, 2010: 155)

1. 다문화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도 배타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이 여전하다. 사회적 편견과 멸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어릴 때 제도권 교육에서 밀려난 다문화가정 아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각계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의 교육적 지원은 제도권의 학습을 따라가는 목적의 교육이 아닌,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감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교육현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통합적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교육이론 중에서 통합교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구성주의 교육론,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홀리스틱 교육론 등을 들 수 있고, 이런 이론들은 통합교육이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을 통하여 삶과 교육과정을 연결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결과를 가져오는 총체적인 방식의 학습을 촉진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통합교육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간 통합인 예술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인천문화재단, 2008). 음악이나 미술 등 타 교과에서는 이미 음악 감상과 통합된 신체표현, 그림그리기,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통합 연구가(김은주, 2001; 손수연, 2001; 장창숙, 황보영란, 2001: 91-103)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이미 입증되었다.

2. 다문화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합창무용교육

합창무용은 합창에서의 무용을 이야기하며, 이는 곧 합창을 하면서 함께 무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창무용교육은 합창곡의 내용과 곡의 감성에 따른 다양한 무용과 퍼포먼스를 가르치며 공연을 하는 융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안비화, 2015: 24)

본 연구에서 시도되는 합창무용교육은 예술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합창무용교육은 음악과 무용의 결합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이론 중심의 기존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예술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교육이다. 특히 무용예술은 인간의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여러 문화예술분야 중 기본적인 장르에 속하면서 공연예술로서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장르와 가장 잘 어울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합창무용교육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존중하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체험’, ‘이해’, ‘소통’, ‘감상’의 과정이 녹아 있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구성주의적 교육관에 기초하는데 여기에서의 ‘체험’은 수용 및 맛보기, ‘이해’는 적용 및 익히기, ‘소통’은 표현 및 확장을 뜻한다. 그리고 ‘감상’은 자신의 감상 느낌과 비평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감상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학습자들을 이해하게 되며, 학습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별적 관점에서 시야의 폭을 넓히게 되고 학습자들 간의 ‘차이점’ ‘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아동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편견이 없어지고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자신감 있는 소통과 표현력 등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된다.

교육의 이론적 기초로는 라반의 BESS(Body, Effort, Shape, Space) 움직임 이론과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교육을 기초로 한다. 라반의 BESS 움직임 이론은 아동의 정확한 움직임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안무자에게는 움직임의 특질을 개발 시키고, 아동에게는 창작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홍진영, 2010).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교수방법은 신체적 동작을 통해 리듬감을 체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악적 리듬이 인간의 신체적 리듬에 기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리듬 요소를 아동 각자가 자신의 신체 악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찾아내도록 이끈다. 아동들이 표현의 도구로서 그들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과 썸머림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그들 스스로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합창무용교육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신체를 사용하여 자기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 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상호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합창무용교육은 비언어적 소통매체(음악과 무용)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쌍방향 다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3.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의 효과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기의 순수한 마음과 표현력 포용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함께하는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배가된다.

다문화사회 아동 중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부분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있어서 이중문화는 아동 스스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부모의 이중문화에 대하여 긍정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합창과 무용을 합창무용교육을 통해 배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합창무용교육은 다문화사회의 아동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수반하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합창곡과 무용의 구성에 있어서 다문화 구성원들의 문화와 관련된 민속음악과 춤을 배경으로 함으로서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또래와의 협동학습으로 서로간의 소통능력과 협동심을 키워 사회성을 배

양시킬 수 있다.

- 셋째, 수업시간에 계속적인 표현과 발표의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에 대한 적극성과 자신감을 배양시킨다.
- 넷째,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능력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비용 면에 있어서도 합창무용 교육은 다른 예술영역과는 달리 비교적 경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안비화, 2012: 56).

합창무용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치가 있다.

V. 합창무용교육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선교 가능성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지자체 또는 어떠한 교육 기관보다도 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발전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넓게 퍼져있는 교회이다. 교회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평범한 이웃, 소외된 사람 등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이는 곳이고, 함께 나누고 평등해지며 사랑을 널리 베푸는 곳이다. 즉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된다.

이러한 교회에서 다문화 사회의 아동들을 위한 합창무용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기관이 수행하는 것보다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단지 아동들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효과는 그 부모들에게, 나아가 교회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1) 합창무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

교회는 합창무용교육을 실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느 교회나 성가대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합창무용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피아노와 반주자, 지휘자, 연습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다양한 교회행사가 열리고 있고 그 행사를 통해 준비한 합창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열린 사랑의 마음을 갖춘 훌륭한 관객까지도 확보되어 있다. 교회는 합창무용교육을 통해 공연 작품을 만들고 발표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적절히 활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서는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상황의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셨듯이, 다문화가정 아동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해야 한다.

더욱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준비시키는 교육으로써, 교회에서의 합창무용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편견과 차별 없는 이해와 소통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다.

(2)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파급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은 다문화 인과 기존의 일반인이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교육 대상이 다문화 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다. 일반인들이 편견과 차별, 몰이해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 교육은,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이 함께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다양한 문화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릴 때부터 서로의 문화가 ‘다른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함께 어울린 공연의 장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정 아동 주변의 이주민 친구들과 부모의 발길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합창무용교육으로부터 시작된 아동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의 어른들을 연결하는 장이 열릴 것이며, 나아가 교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다문화가정과 우리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시대적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합창무용교육을 통한 복음 전도

복음은 강제로 주입될 때 거부감이 생기고 그 힘을 잃는다. 특히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예배 참석권유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합창무용교육 과정을 통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된다. 또한 공연 발표회를 보러 오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생기며 이들에게 교회가 보다 친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갈등에 직면한 사람을 일깨워 세상과 만나도록 함으로써 그를 세계변혁의 주역으로 삼는다. 때문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합창무용교육을 통하여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 합창무용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자신의 재능을 찾고 발전시킬 뿐 아니라, 선교와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다.

VI. 합창무용교육프로그램 모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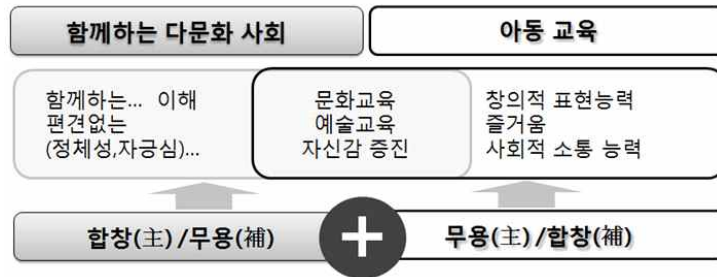
1. 프로그램의 목적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방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 및 예술을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인간을 교육하고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목적도 이와 맥을 같이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합창무용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고 함양과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성, 창의성, 정서적 풍요를 위한 인간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본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 첫째, 긍정적 자아정체감 및 문화정체감 확립
- 둘째, 자신감과 자긍심 증진
- 셋째, 사회적 소통능력 개발
- 넷째, 창의성 향상이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



[그림1]프로그램의 목적

2.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은 문화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와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연계성을 확립한 후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합창에서의 무용교육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총 12차시로 구성 된 본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선행연주 중심의 문헌고찰과 연구자의 합창무용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 조언 및 회의, 토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합창과 무용교육에 있어서의 기본자세, 위밍업, 집중하기, 공간에 대한 이해, 움직임의 질, 이동하는 움직임, 리듬, 곡에 따른 창작, 공연과 감상으로 총 9개의 모듈(Module)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인 1차시에서 3차시에는 합창단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무대매너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2단계인 3차시에서 4차시에는 움직임 교육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 움직임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단계인 5차시에서 10차시는 실제적인 안무교육으로서 세계 민속합창음악에 따른 창작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4단계인 11차시에서는 무대리허설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5단계인 12차시에서는 공연에 따른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단계	내용	차시
1단계	합창단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무대 매너교육	1-3
2단계	움직임 교육	3-4
3단계	무용교육	5-10
4단계	전체 리허설	11
5단계	공연과 감상	12

<표2> 다문화사회 아동 위한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의 단계

교육과정 구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대상	합창단원(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	1 긍정적 자아정체감 및 문화정체감 확립 2, 자신감과 자긍심 증진 3, 사회적 소통능력 개발 4, 창의성 향상
모듈 (단위 프로그램)	합창과 무용에 있어서의 기본자세
	위밍업
	집중하기
	공간에 대한 이해
	움직임의 질
	이동하는 움직임
	리듬
	곡에 따른 창작
	공연과 감상

<표3>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모듈의 내용

매 차시별 프로그램의 구성 순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주요 개념에 대한 강의 및 시범보이기, 창작과 감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수업 중 수시로 그룹별 또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학습동기를 촉진하였다. 또한 곡의 선정에 있어서 각 나라의 민속합창음악에 맞는 민속춤을 선정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의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1단계인 1차시에서 3차시에는 합창단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무대매너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2단계인 3차시에서 4차시에는 움직임 교육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 움직임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단계인 5차시에서 10차시는 실제적인 안무 교육으로서 세계 민속합창음악에 따른 창작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4단계인 11차시에서는 무대리허설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5단계인 12차시에서는 공연에 따른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단계	내용	차시
1단계	합창단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무대 매너 교육 (기본자세, 위밍업, 집중하기)	1~3
2단계	움직임 교육 ①공간에 대한 이해, ②움직임의 질-임팩트, 임펄스, 스윙, ③포즈와 이동하는 움직임, ④리듬	3~4
3단계	안무교육 곡에 따른 창작(Pokare Kare Ana · 뉴질랜드/ 위스키다라 · 터키/강강술래, 꽃타령 · 한국/고산청 · 중국/ Aizu Bandaisan · 일본/ 콤바야 · 아프리카)	5~10
4단계	전체 리허설	11
5단계	공연과 감상	12

<표4>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 단계 및 내용

(4)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학습 단계	동작을 통해 문화 이해하기	차시	7차시/12(90분)
학습 주제	• 합창음악에 포함된 움직임의 요소 찾기	준비물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인터넷 등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다. • 곡의 이해와 음악과 무용에 나타난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안무 만들기 •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협동하고 즐기는 태도를 가진다. 		
내용 특성	창의적 표현능력과 심미적 태도 습득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한다.		
단계	활동내용		
도입	위밍업, 모둠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풀기 동작 • 6~8명으로 모둠 구성하기 	
전개	러시아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나라 추측하기 • 세계지도에서 러시아 위치 찾기 	
	러시아 합창음악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합창음악 감상 • 음악 속에 녹아 있는 역사와 상황 알기 • 러시아 무용의 특징 파악하기 	
	리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음악에 나타난 리듬 이해하기 	
	곡에 따른 창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linka: 러시아 노래 불러보기 • 음악에 맞는 민속무용 탐색하기 • 음악에 구조에 맞춰 keyword 가 되는 움직임 찾아내기 	
	통합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익히기 • 의상 조사 • 역할에 맞는 소품 의논하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별로 나와서 자신이 표현하는 움직임 가운데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표해보도록 한다.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 자신의 움직임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 다음수업에 확장활동 및 연계활동을 생각한다. • 인사한다. 		

<표5>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12차시 중 7차시 지도안

- ① 칼린카(kalinka) 러시아의 민속 음악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곡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준다

(가사내용)

깔린까, 깔린까, 나의 깔린까,

В са ду ягода-малинка, малинка моя!

정원에 들딸기, 산딸기가 자라고 있네. 나의 산딸기!

Калинка, калинка, калинка моя,

깔린까, 깔린까, 나의 깔린까,
В саду яго да-малинка, малинка моя!
정원에 들딸기 산딸기가 자라고 있네. 나의 산딸기!
Ах, под сосною, под зеленою,
아~ 소나무 아래, 푸른 소나무 아래에
Сп ать положите вы меня.
잠들도록 나를 눕혀 주시오.

Ай , люли-л юли, ай , люли-люли,
아! 좋구나 좋아! 아! 좋구나 좋아!
Спать п оложите вы меня.
잠들도록 나를 눕혀 주시오.

Калинк а, калинка, калинка моя,
깔린까, 깔린까, 나의 깔린까,
В саду яго да-малинка, малинка моя!
정원엔 들딸기 산딸기가 자라고 있네, 나의 산딸기!
Ах, сосенушка ты зеленая,
아~ 너 푸르른 소나무야,
Не шуми же над о мной !
내 머리위에서 소리내지 말아라!

Ай , люл и-люли, ай , люли-люли,
아! 좋구나 좋아! 아! 좋구나 좋아!
Не шу ми же надо мной !
내 머리위에서 소리내지 말아라!

Калинка, калинка, калинка моя,
깔린까, 깔린까, 나의 깔린까,
В саду яго да-малинка, малинка моя!
정원에 들딸기, 산딸기가 자라고 있네, 나의 산딸기!
Ах, красавица, душа-девица,
아~ 아름다운 여인이여, 순수한 영혼이여,
Полюби же ты меня!
나를 사랑해 주시오!
Ай , люли-люли, а й , люли-люли,
아! 좋구나 좋아! 아! 좋구나 좋아!
Полюб и же ты меня!
나를 사랑해 주시오!

- ② 음악의 내용과 리듬에 담겨져 있는 움직임을 탐색해 본다
(민속무용 영상에 담겨져 있는 움직임을 함께 배워보며 동시에 음악에 있어서
의 keyword 가 되는 움직임을 찾아낸다).

- ③ 다양한 심미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창작 및 발표하고 자신, 타인, 모듬별로 창작 작품 속에 나타난 심미 표현을 비교, 감상하다.

VI. 결론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이주민과 지역민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어야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현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다문화사회를 맞아 이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는 장을 다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사회의 각 기관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지역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역할에 앞장서야 하며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함으로 보호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 또한 이를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상호경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으로서 통합적 문화예술 교육의 하나인 합창무용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선교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교회에서의 합창무용교육의 시행은 교육 여건 및 파급효과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교회의 운영시스템과 물리적 조건들이 아동들의 합창무용을 교육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또한 좋은 장점이다. 아동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교감과 동화는, 나아가 그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어른들 간에도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에 널리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다문화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지역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향한 열린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합창무용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실 (2010).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역할에 대한 소고,” 「교회사회사업」제 14호, 154P.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 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은주 (2001). 「통합적인 음악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페이지???)
- 김재중 (2010). 「성경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준 (2011) “다문화 기독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 김해성 (2005). 「구약성서의 ‘외국인 이주자’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윤중(2014)「다문화가정 선교에 대한 연구」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P
- 설동훈 (2000).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2000 외국인노동자 단체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교회문제 연구소,
- 설동훈·이혜영·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고신대학교 고신신학연구원 (2012)「고신신학」. No.14, P195-198.
- 소기천(2000)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방인 선교, 「장신논단」vol, 16
- 손현숙, 박세정 (2007)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論文集」,130P
- 신민자, 이진숙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개념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2):1
- 안경식 외 공저 (2008)「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P37-38
- 안비화 (2015) “사회적 소통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한국교육무용학회지」. vol26 No.2. 한국교육무용학회 .24P
- 안비화 (2012).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여성가족부(2012),“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168p
- 오성배 외 (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P67
- 오태균 (2006) “다문화 사회속에서의 기독교 교육 과제” 「기독교교육정보」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194P
- 인천문화재단 (2008) “초·중등학교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개발 연구.”
- 장창숙, 황보영란. (2001) “유아의 음악 감상 활동과 그림 그리기 활동과의 관계 연구”, 「인간환경복지 연구」. 창간호: 91-109
- 정웅섭(2001). “다원사회에서의 종교교육과 교육목회”,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한국신학연구소,
- 정하성·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용진(2009),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다문화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26P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아동교육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진영 (2010). 「라반이론을 적용한 움직임 표현활동 교육 활용성 탐색」.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 교육기본 통계(2005).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교육부(2012). “2012년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
- 교육부(2014). “다문화가정 현황 토예. 월드와이드웹
<http://www.moe.go.kr/web/100085/site/contents/ko/ko0123jsp?selectId=1085>
-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
- 안전행정부(2012). “다문화가정 조사 현황 통계. 월드와이드웹
<http://www.moe.go.kr/frt/a01Main.do>
- 통계청(2013). 다문화가정 현황 통계. 월드와이드웹
<http://www.mogef.go.kr>

